

2022
제10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프로그램 북
Program Book

2022.2.11(금)~2.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 |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국립극단
협력 | 일한연극교류센터(日韓演劇交流センター)

2022 현대일본희곡 제10회 낭독공연

2022.2.11(금)~2.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 |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국립극단
협력 | 일한연극교류센터(日韓演劇交流センター)

총괄기획 심재찬(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 권지현(한일연극교류협의회 사무국장)
총괄무대감독 이목수 총괄조명디자이너 정유석 총괄음향감독 전민배 총괄진행 조윤수
한일코디네이터 이시카와 유리
촬영 및 송출 플레이슈터

〈하얀 꽃을 숨기다〉

연출 설유진 사운드 디자이너 목소
출연 곽지숙 류경인 박지아 옥자연 황선화 황순미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연출 이양구 조연출 최현서 장윤하 자막 박세연
출연 김다현 김미로 노재원 송철호 신기환 신윤지 우범진 최설화

〈1986년: 뱀바우스의 띠〉

연출 부새롬 조연출 조예은
출연 노기용 류원준 백종승 신정원 오대석 전석찬 조재영

그래픽 디자인 주자소
심포지엄 사회 성기웅
심포지엄 통역 이흥이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 가토 타케시
부장 다카하시 사치
부장보좌 고은강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기획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김수현

무대기술 총괄 정광호
무대감독 김정빈 김태연
조명감독 김용주 임수연
음향감독 음창인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이현아
온라인 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티켓 김보배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민경 임지은 송솔
김지수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김민경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만나면 교류가 됩니다



심재찬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회장

어느덧 여러분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2002년 한일연극교류협의회를 발족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현대일본회곡 5편을 번역하여 『현대일본회곡집』을 출판하고 그중 세 편을 낭독공연으로 선보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5회까지는 반드시 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벌써 10회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두 배로 약속을 지키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의 성과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현대회곡 50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했고, 한국 현대회곡 50편도 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었습니다. 낭독공연이라는 형식이 자리잡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일 연극교류의 환경이 많이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작품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감각과 세대에 맞는 교류 방식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번 행사를 끝으로 사업 설계를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인적 구성은 물론 행사의 기획과 운용, 작품 선정 기준 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다음 세대 연극인들의 몫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교류라는 게 특별한 행사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가 쌓이면 그것이 곧 교류가 된다는 것은 오랫동안 제가 지녀온 신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고의 낭독공연을 준비해 준 연출자, 배우, 스태프들에게 관객들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국립극단과 남산예술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회 행사를 공동주최해주신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며



오자사 요시오

일한연극교류센터 회장

저희가 20년간 계속해 온 한일 간의 낭독공연 사업이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될 행사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서울과 도쿄를 해마다 오가며 열 번씩 만나기로 한 약속이 이로써 달성된 셈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일본 측 관계자들이 서울에 못 가게 된 점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을 도쿄에서의 낭독공연에 초청하지 못한 지난 해에 이어 안타까운 사태가 연속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이긴 해도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짧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큰 풍파가 일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정과 신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값진 보물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교류사업으로 일한연극교류센터는 한국의 문화관광체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뜻밖의 영예요, 기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아울러 이 교류사업을 직, 간접적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류사업의 향후에 대해 덧붙이자면, 제가 회장 직을 맡고 있던 현 체제는 이것으로 막을 내리지만 젊은 회원들 사이에 한일 간의 연극교류를 계속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체제를 일신하고 21년째의 행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착수한 단계이니 앞으로 선보이게 될 새로운 교류사업에도 뜨거운 관심과 용원을 부탁드립니다. 큰 풍파 없이 순항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얀 꽃을 숨기다

白い花を隠す

● 2월 11일(금) 19:30

작 | 이시하라 넨 (石原燃)
번역 | 명진숙
번역협력 | 이시카와 유리
연출 | 설유진
사운드 디자인 | 목소
출연 | 광지숙, 류경인, 박지아,
옥자연, 황선화, 황순미

시놉시스

하얀 꽃을 숨기다 (2017년 초연)

작은 다큐멘터리 제작회사에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기획 의뢰가 들어왔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여성국제전범법정”. 구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문제를 재관하는 민중법정이다. 스태프들은 오랜 기간 회자되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을 전달하고자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는데, 방송국 측에서 이례적인 지시가 잇달아 하달되고, 프로그램 내용의 변경을 강요받는다.

2001년에 실제로 있었던 NHK 프로그램 변경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 프로필

이시하라 넨



사진제공 Shinoda Hidemi

극작가, 소설가. 도쿄 출생. 무사시노 미술대학 건축학과 졸업.

2007년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2011년 여름에 오사카로 이주해, 연극 유닛 아카리자(燈座)를 창단.

2016년에 도쿄로 돌아와,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대만을 그린 〈포르모사!(フォルモサ!)〉가 극단 오사카 창립 40주년의 희곡상에서 대상을 수상. 2011년에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의 도쿄를 그린 단편 〈팔삭(はっさく)〉

이 뉴욕의 연극인들이 시작한 찰리티 기획 〈지진 SHINSAI:Theater for Japan〉에서 다루어지고, 2012년 3월 11일에 미국 각지에서 공연되었다. 그 밖의 주요 희곡 작품으로 의족을 도둑맞은 모녀의 사건을 그린 〈사람의 향기(人の香り)〉,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프로그램 변경 사건을 다룬 〈하얀 꽃을 숨기다〉 등이 있다. 2017년 P컴퍼니가 초연한 〈하얀 꽃을 숨기다(연출 오가사와라 교)〉는 제 25회 요미우리연극대상 우수연출가상을 수상했다.

2020년 자신의 첫 소설 〈붉은 모래를 차다〉로 제163회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연출가 프로필

설유진



사진제공 국립극단

907 대표.

극작과 연출을 한다.

〈홍평국전〉, 〈제4의 벽〉, 〈어슬렁〉, 〈레몬 사이 다 썬머 클린샷〉, 〈너에게〉, 〈9월〉, 〈초인종〉 등을 작업했다.



사진제공 P-company

작가 인터뷰

이시하라 넌

▶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는 작가도 계십니다. 어떻게 연극에 관심을 가지고, 희곡을 쓰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연극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즐거웠던 게 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다니던 돌봄교실 연극부에 있었고, 중학생 때는 학교 연극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무렵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에 부딪쳐 단념을 했습니다. 그 뒤 30대 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을 무렵, 시간활용으로 희곡을 읽을 생각에 서점에 갔는데, 거기서 희곡을 쓰는 방법이란 책을 발견하고, 희곡을 쓴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희곡을 쓰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하얀 꽃을 숨기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00년에 개최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정치적 압력을 받으며 내용이 변경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픽션 작품입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제도였습니다. '위안부' 문제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일본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비추어 주는 사건이고,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근간에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째서 그 사건을 바탕으로 희곡을 쓰려고 생각하셨나요?**

당초에는 과거의 비극으로서 취급될 '위안부' 문제를 우리들의 동시대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전쟁 성폭력으로 불리게 되었을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전쟁터에서의 성폭행과는 다른, 국가가 관리한 성노예제도였기 때문에, 정치가들이 필사적으로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 자신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평소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진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하는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2017년 봄 초연과 2018년 여름 재공연에서 작품이 달라진 게 있나요?**

마침 초연과 재연 사이에, 미투(#me too)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초연시에는 프로그램 변경사건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재연시에는 여성국제전범법정 그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싶었습니다. 여성들의 증언이 하나의 미투운동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 시작된 미투운동과 같은 파도가 널리 퍼져 나가, 언뜻 관계없이 여겨지는 사람들까지, 여성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힘에 압도되어, 다양한 사람들이 요동친다고나 할까, (방송 제작에) 압력이 가해진 것까지 포함해서,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캐스팅의 문제도 있고, 대본상 미세한 부분수정은 있었지만, 커다란 변경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연기로서는 여성 디렉터인 다나가 원사람들 공격에 굴복하지만, 내면에는 분노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 **테네시 윌리엄스의 <페튜니아를 짓밟은 거인>이라는 단막극에서 주요인물이 화분에 심은 페튜니아를 기르고 있다는 설정이 차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페튜니아를 짓밟은 거인>의 해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페튜니아는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 따위를 망각하게 하는 “무료하지만 정갈한 소시민적 삶”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페튜니아를 짓밟은 젊은 남자를 도모시는 처음에 반사회적 존재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만, 마지막에는 야생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무료하지만 정갈한 소시민적 삶”을 버리고, 집을 나갑니다. 이것은 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에 정면으로 맞설 각오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흐름을 작품에 반영한 것입니다.

▶ **여성국제전범법정에 관해 쓴 <하얀 꽃을 숨기다>는 한국과 관련이 깊은 작품입니다. 관객 분들께 간단한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작품 집필을 위해, 여성국제전범법정 영상을 보았습니다. 천황에 대한 판결이 언도되고, 여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메이지시대에 전쟁을 목적으로 한 국가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생겨난 겁니다.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 속에서 우리들도 억압되어 왔고, 그 억압이 더 약한 자에게 연쇄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 천황에 대한 유죄 판결이 언도되는 영상을 보고 저도 해방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변경사건이 아닌 것이 되어 버린 것을,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¹ <하얀 꽃을 숨기다>를 통해, 변경사건으로 감추어진 것을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습니다.

▶ **이시하라 씨는 첫 장편소설 <붉은 모래를 차다(赤い砂を蹴る)>로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곡은 쓸 생각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십시오.**

내년 3월에 임신중단 문제를 주제로 한 신작 희곡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고, 그 다음 4월에 홍콩희곡 번역에 관여한 작품이 상연됩니다. 그 다음에는 희곡을 잠시 쉬고, 소설을 쓸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희곡도 기회가 있으면 쓸 생각입니다.

1 2001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주최자 측이 원고가 되어 “피해여성들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시청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시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NHK와 NHK엔터프라이즈21, 다큐멘터리 재팬을 제소했다. 2007년 1월 고등법원에서 원고 측이 승소했지만, 2008년 6월 대법원에서는 패소했다.

만 나 러 갈 게 비 는 오 지 만

逢いにいくの、
雨だけど

● 2월 12일(토) 15:00

작 | 요코야마 다쿠야 (横山拓也)

번역 | 이해정

연출 | 이양구

조연출 | 최현서, 장윤하

자막 | 박세연

출연 | 김다현, 김미로, 노재원, 송철호,
신기환, 신윤지, 우범진, 최설화

시놉시스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2018년 초연)

연애, 친구, 가족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짓과 기만, 죄의식 등이 반복하며 굴절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다. 거기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운명을 돌려놓은 사고로 인하여 인물들 사이에 묘한 균형을 이루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구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간다. 어떤 보상과 세월로도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마음의 문제를 깊숙이 펼쳐기 시작한다.

작가 프로필



요코야마 다쿠야

1977년생 오사카 출신, 극작가, 연출가.

2012년 창단한 연극 유닛 iaku 대표.

불편한 제재를 시원시원한 문체와 관서지방 방언으로 풀어내며 주로 타인의 의논·논쟁을 들여다보는 듯한 대화극 형식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치밀한 대화를 나선계단을 올라가듯이 시간을 들여 겹겹이 쌓아 올리는 기법으로, 어느새인가 등장인물들의 갈등에 함께 하고 있는 듯한 감각으로 빠져들게 하는 전개가 특징이다.

대표작품

2009 제15회 일본극작가협회 신인회곡상 〈지육〉

2013 제1회 센다이단편 회곡상 〈사람의 기분도 모르면서〉

2017 제72회 문화청 예술제상 신인상 〈하이츠부리가 날아가는 걸〉

2019 제22회 쓰루야난보쿠 회곡상 노미네이트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OMS회곡상 가작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뜨거운 가슴 두근거림〉

2021 제65회 기시다쿠니오 회곡상 최종 후보작 〈어젯밤 레시피〉

연출가 프로필



이양구

극단 해인 대표

극작가, 연출가

〈일곱집매〉(2012), 〈노란봉투〉(2014) 등 작

〈이게 마지막이야〉(2019), 〈문밖에서〉(2020),

〈집집〉(2021) 등 연출



사진제공 iaku

작가 인터뷰

요코야마 다쿠야

- ▶ **운율적 제목이 인상적인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은 1991년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 간에 생긴 사고로 27년간 만나지 못한 두 사람이 2019년 1월 조우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우선 궁금합니다.**

제목의 ‘비’라는 단어에는 ‘기분이 가라앉는다’, ‘마음이 울적해진다’는 심정을 가탁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하필이면 알미운 비’라는 상투어가 있고, 언어유희 요소도 담겨 있습니다.

- ▶ **이 작품은 2019년 제22회 쓰루야난보쿠 희곡상에 노미네이트되며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구상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처음에는 ‘용서하는 일’을 쓰고자 하였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 필연적으로 ‘용서받을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집필 준비 과정에서, 용서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드라마가 막히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용서받고 싶다’는 생각은 ‘벌을 받고 싶다’에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용서하는 측을 곤혹스럽게 합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태도가 얼마나 오만하고 이기적인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극 중 가해자와 피해자는 만나지 못한 긴 시간 속에, 과거 사고의 진실은 명확하지 못한 채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응어리’가 남았고, 그걸 녹여내는 모습을 관객과 함께 지켜보는 듯한 작품이 되었으면 하고 제작하였습니다.

- ▶ **2017년 초연한 〈속속히 운침(肅々と運針)〉을 비롯하여 주요 몇몇 작품 구성이 유니버스 스타일로 되어 있고,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도 큰 틀에서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전개됩니다. 이러한 작법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2016년까지는 한 장소에서 하나의 축으로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묘사하는 콘셉트에 한정하여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어소사이어티 공동주최로 소개된 낭독공연 〈지옥(エダニク)〉(2009년 초연)도 도살장의 휴게실을 무대로, 장면 전환이 없는 작품입니다. 〈차



사진제공 iaku

창에서, 세계의(車窓から、世界の)) (2014년 초연)은 역 플랫폼에서 지연되고 있는 전차를 기다리는 상태를 설정하였는데, 등장인물 전원이 그 역에 계속 머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관객의 지적을 받은 일을 계기로, “난 연극의 자유로움을 스스로 방치한 게 아닌가?” 생각하여, 2017년 〈숙숙히 운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TV 드라마처럼 자유로운 장면 전환과는 다른, 무대의 제한 속에서 ‘앗!’하는 시공간의 변형이 나타나는 순간을 묘사하고자 의도하면서 최근에는 유니버스 스타일의 작품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공감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각 등장인물은 각각 정당함이 있고, 각각 바르지 못함이 있고, 각각 갈등이 있습니다. 타자와 다툼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 일본인에게는 특히 사람 간의 갈등을 대면해보는 모의체험을 해보고자, 타자를 향한 상상력과 헤아리는 마음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치열하게 주고받는 장면도 가능한 소심할 정도의 대사로, 유머를 섞어서 더 전달하기 쉽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한국에 소개되는 감회와 관객에게 미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작품은 일본어의 뉘앙스를 살린 대화 중심의 연극으로, 섬세하고 고지식한 심성을 지닌 사람들만이 등장하여 그들의 기묘한 표현 방법과 헤쳐나가지 못하는 장면에서 조금은 감잡힘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현대 일본 사회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6년 메비우스의 띠

1986年 :

メビウスの輪

● 2월 13일(일) 15:00

작 | 다니 겐이치 (谷賢一)
번역 | 성기웅
연출 | 부새롬
조연출 | 조예은
출연 | 노기용, 류원준, 백종승, 신정원,
오대석, 전석찬, 조재영

시놉시스

1986년: 메비우스의 띠 (2019년 초연)

원자력발전소가 생긴 지 어언 15년 세월이 흐른 후쿠시마 현의 작은 마을 후타바. 지방의회 선거에서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셔온 호즈미 다다시는 지금까지의 강경한 원전 반대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읍장 선거에 나서서 당선된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식을 접한 후타바의 새 읍장 호즈미 다다시는 후타바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지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나 그의 주변 사람들은 다다시의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데……

작가 프로필



다니 겐이치

1982년에 후쿠시마 현에서 태어나 지바 현에서 성장.
2005년, 극단 DULL-COLORED POP 창단.
2012년, 연극 유닛 Théâtre des Annales 결성.
2013년에 번역·연출한 <최후의 정신분석>으로 제 6회 오다시마유시 번역희곡상과 문화청 예술제 우수상 수상.
2019년에 발표한 '후쿠시마 3부작'으로 제64회 기시다쿠니오 희곡상을, 그 중 제 2부 <1986년: 메비우스의 띠>로 제 23회 쓰루야난보쿠 희곡상을 수상.

메이지대학교와 영국 켄트대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했고 극작가, 연출가, 희곡번역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통적인 연극 유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소극장 연극으로부터 상업연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그의 연극 세계를 극작가 나가이 아이(永井愛)는 “참신한 기법과 고전적인 소양의 행복한 합체”라고 평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고향 인근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2년 반 동안 취재하여 창작한 '후쿠시마 3부작'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연출가 프로필



사진제공 두산아트센터

부새롬

극단 달나라동백꽃 대표.

<달콤한 노래> <햄릿> <마우스피스> <썬샤인의 전사들> <그 개> <2센치 낮은 계단> <로퐁찬 유랑극장> <검은 입김의 신> <아이앰파인투> <달나라 연속극> 외 다수



사진촬영 Shirado Ryouji

작가 인터뷰

다니 겐이치

- ▶ 이 ‘후쿠시마 3부작’을 위해 2년 이상 취재를 했고, 특히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가까운 곳까지 현재 취재를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고, 그 경험이 작품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요?

취재를 하면서 유념한 건 유도심문과 같은 질문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제 쪽에서 먼저 지진이나 쓰나미, 원전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해였고 고향 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금 심정이 어때요?” 같은 무신경한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어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 여길지도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출신인 저로서는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사람들을 만나 잡담을 나누는 것 같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너무 에둘러 가는 방식일 것 같아도 대개는 이야기를 나눈 지 5분도 되지 않아 3.11 대지진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말해지고픈 말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건, 그분들이 저마다 전혀 다른 재난을 체험했고 저마다 서로 다른 고민을 품고 있더라는 점입니다.

- ▶ 이번 낭독공연에서는 제 2편만 소개됩니다만, 3부작 전체에 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제 1편인 〈1961년: 밤에 뜨는 태양〉은 작은 벽촌이었던 시골 마을 후타바 읍에 어찌서 일본 최초의 영업용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었는가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동시에 다카시라는 청년이 고향을 버리고 도쿄로 떠나는 이야기도 담았고요. 당시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난한 마을을 돈으로 유혹하여 매수하는 식으로 원전 유치가 결정되었던 경위를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또, 자신의 발전을 위해 고향을 버리는 다카시의 모습을 통해 수도와 지방의 격차 문제도 상징적으로 그리려 했고요.

제 3부 <2011년: 말해지고픈 말들>에서는 재해 직후 취재를 이어가는 방송국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또,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피해자들인 후쿠시마 현민들끼리 반목하는 슬픈 분단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릇된 소문이나 여론으로 피해를 입는 현상도 다룹니다. 마지막에는 한 줄기 희망도 이야기되지만, 다시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슬픈 연극이네요.

▶ **2019년에 3부작을 한꺼번에 공연하셨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었을 듯합니다. 한국에서라면 극단 제작 공연으로 신작 세 편을 함께 공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그런 대담한 기획을 실현할 수 있었나요?**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공연 기간도 장소도 안 정해진 상태에서 ‘2년 동안 후쿠시마를 취재해서 3부작을 쓸 것이고(실제로는 3년이 걸렸습니다), 관객 1만 명을 동원하여 후쿠시마의 실태를 사회에 널리 전하는 연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0만 엔의 지원금을 모았죠. 공연 제작비로는 부족한 금액이었어도, 한 명의 작가가 자전거로 후쿠시마 현을 돌아다니며 취재를 이어가는 자금으로서는 충분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회극을 탈고한 후에는 평소 하던 대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리허설을 열심히 하고 관객들을 부르는 거죠.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소재인 데다 후쿠시마에 관해 알고 싶어하고 후쿠시마를 응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기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객 1만 명 동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예전에 대략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의 일이란, 아직 이야기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그렇듯 제가 연극을 잘 만들었다기보다 모두가 후쿠시마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 **다니 씨는 다양한 연극의 유산을 소화하는 연극작가라고들 합니다. 또, 일본 연극계에서는 드물게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작가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연극적 전통이나 선배 연극인이 있다면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건 제게 제일의 재산입니다. 제게는 혁명과 같은 남다른 재능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의 연극 유산을 모방하고 변형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죠. 동서고금의 연극을 공부했던 5년(일본의 대학에서 4년, 영국의 대학에서 1년)의 시간은 무척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니스랍스키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히라타 오리자처럼 쓰기도 쓰카 고헤이처럼 쓰기도 합니다. 아르토나 데라야마 슈지의 연극으로부터도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영향을 받은 극작가, 연출가를 꼽으라면 끝이 없겠는데요, ‘후쿠시마 3부작’과 관련해서라면 베르톨트 브레히트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영향으로 제 1편에서는 자막을 썼고, 제 2편에서는 중반부에 갑자기 음악극이 되는 발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 3편의 재공연 때는 가능한 한 감정입을 피하는 연출을 하려 했습니다. 브레히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천재기도 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침착하고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했던 연극인, 연극을 통해 사회를 바꾸려 노력했던 특출난 연극인이었습니다. 제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 **다니 씨는 영국 유학 경험도 있어서 영어 회화의 번역, 해외 연출가와의 협업 등에서도 많은 활약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일본에서도 국제간 교류나 공동제작이 많이 위축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또, 요즈음 도쿄 연극계의 현황에 관해서도 들려주세요.**

한국의 상황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국제간 공동제작은 절망적이에요. 작년에는 제가 이스라엘의 안무가를 일본에 초청해서 공동제작을 할 예정이었는데, 결국 줌(Zoom)을 통해 안무를 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밖에 중지된 프로젝트도 많아요. 또, 외국으로 공연을 보러 갈 수도 없게 되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쿄에선 공연을 계속 해나가려는 노력을 집요하게들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표정은 무척 어둡습니다. 연극인들은 ‘연극은 시급한 일이 아니다’, ‘연극 없이도 살 수 있다’, ‘왜 이런 때 공연을 하려 하나, 그러다 감염이 퍼지면 어떻게 하려고’ 같은 무심한 말들을 들으며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요. 전보다는 조금씩 인식이 나아지고 있지만, 사회에서 연극의 매력이나 필요성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은 듯합니다.

한일연극교류협의회와 일한연극교류센터가 20년간 걸어온 길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한일연극교류협의회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극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해 2002년 발족했다. 카운터 파트너인 일본의 일한연극교류센터와 협력하여 교류사업을 주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인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및 심포지엄'과 '한국현대희곡 드라마리딩 및 심포지엄'은 각각 서울과 도쿄에서 한 해씩 번갈아 진행되고 있다. 또한 희곡집 번역 및 출판, 연극 관련 워크숍 개최 등으로 한일 연극교류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 한일연극교류협의회 발족

2002년 9월 7일

■ 제1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도쿄

2002년 10월 11~13일, 대학 생협회관 바스티홀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1』 출판

〈대대손손〉 박근형 작 / 구마가이 쓰요시 번역 / 임영수 연출
 〈미친키스〉 조광화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요시무라 하치가쓰 연출
 〈바보각시〉 이윤택 작 / 김성수 번역 / 이시자와 슈지 연출
 〈허탕〉 장진 작 / 아오키 겐스케 번역 / 고마쓰 안리 연출
 〈사랑을 찾아서〉 김광림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우치다 도오루 연출

● 워크숍 이윤택 워크숍 (10월 12~13일)

● 심포지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젊은 극작가들의 활약과 자리매김〉

발제: 임영웅, 김윤철, 이시자와 슈지, 오자사 요시오, 니시도 고진

■ 한일연극교류 세미나-서울

2002년 12월 21일

발제: 임영웅, 박조열, 이윤택, 김윤철
 토론: 차범석, 김정옥, 김의경, 손진책 / 사회: 이웅수

■ 제1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서울

2003년 11월 12~15일,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1』 출판

〈루트64〉 가네시타 다쓰오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박장렬 연출
 〈히메미〉 미야자와 아키오 작 / 박태규 번역 / 심재찬 연출
 〈침묵과 빛〉 마쓰다 마사타카 작 / 송선호 번역 / 최용훈 연출
 *〈천황과 입맞춤〉 사카테 요지 작 / 이혜정 번역
 *〈엄마, 안녕〉 나가이 아이 작 / 박혜성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현대일본희곡의 흐름〉 오자사 요시오
 〈한국에서 공연된 일본연극의 성과〉 김문환
 〈일한연극교류의 미래〉 모리 마사토시
 종합토론: 오자사 요시오, 김문환, 모리 마사토시, 서연호, 이승엽 / 사회: 이웅수

〈돼지와 오토바이〉



〈에비대왕〉



〈자전거〉



〈느낌, 극락 같은〉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행인두부의 마음〉



〈진흙인어〉





〈나무에 꽃피다〉



〈0.917〉



〈인류최초의 키스〉



〈산불〉



〈오장군의 발톱〉



〈이혼의 조건〉



〈통일 익스프레스〉

■ 제2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도쿄

2005년 2월 18~20일, 씨어터 트램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2』 출판

〈자전거〉 오태석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이시자와 슈지 연출

〈새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 김명화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후지타 아사야 연출

〈폐지와 오토바이〉 이만희 작 / 구마가이 쓰요시 번역 / 가네시타 다쓰오 연출

〈에비대왕〉 홍원기 작 / 마정희 번역 / 기무라 신고 연출

〈느낌, 극락 같은〉 이강백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 모리이 무쓰미 연출

● 심포지엄 〈희곡과 공연〉

발제: 오태석, 이강백, 후지타 아사야 / 사회: 니시도 고진

■ 제2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서울

2005년 11월 17~20일,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2』 출판

〈행인두부의 마음〉 정의신 작 / 이해정 번역 / 기국서 연출

〈진흙인어〉 가라 주로 작 / 고정은 번역 / 오태석 연출

〈나무에 꽃피다〉 베쓰야쿠 미노루 작 / 명진숙 번역 / 이윤택 연출

*〈까마귀여, 우리는 탄환을 장전한다〉 시미즈 구니오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북치고 피리불고〉 이노우에 히사시 작 / 박태규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한일 현대희곡의 현재〉

발제: 김윤철, 센다 아키히코, 이강백, 베쓰야쿠 미노루

토론: 김대현, 오자사 요시오, 니시도 고진 / 사회: 임영웅

■ 2006 한일연극워크숍 -서울

2006년 12월 23~25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다목적실

● 낭독공연 〈다락방〉 사카테 요지 작 / 안지혜 번역 / 김광보 연출

● 워크숍 〈사회, 역사 문제와 극작 ·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무대공간〉 (강사: 사카테 요지)

■ 제3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도쿄

2007년 2월 2~4일, 씨어터 트램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3』 출판

〈산불〉 차범석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이시자와 슈지 연출

〈인류최초의 키스〉 고연옥 작 / 야마노우치 다스쿠 번역 / 카사이 도모노리 연출

〈0.917〉 이현화 작 / 정대성 번역 / 나카노 시로 연출

〈이혼의 조건〉 윤대성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 모리이 무쓰미 연출

〈오장군의 발톱〉 박조열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정의신 연출

● 심포지엄 〈한국 근대극의 시작〉

발제: 여석기, 임영웅 / 사회: 오자사 요시오

■ 제3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서울

2007년 11월 29일~12월 2일,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3』 출판

〈억울한 여자〉 쓰치다 히데오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김동현 연출

〈비둘기를 기르는 자매〉 이와마쓰 료 작 / 이해정 번역 / 박근형 연출

〈엄마, 안녕〉 나가이 아이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박정희 연출 (제1회 번역작)

*〈해브즈 사인〉 마쓰오 스즈키 작 / 홍선영 번역

*〈판도라의 종〉 노다 히데키 작 / 명진숙 번역

*〈라스트 쇼〉 나가쓰카 게이시 작 / 박태규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한일 현대연극과 페미니즘〉

발제: 심정순, 장성희, 오자사 요시오, 무라이 켄

토론: 박정희, 나가이 아이 / 사회: 이용수



2003년 제1회 현대일본희곡낭독공연(서울)

■ 2008 한일연극워크숍 -서울

2008년 11월 25~27일 성균관대 경영관 원형극장

- 낭독공연 <판도라의 종> 노다 히데키 작, 명진숙 번역, 송선호 연출
- 무대 워크숍 강사: 호리오 유키오
- 조명 워크숍 강사: 나카가와 류이치

■ 제4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도쿄

2009년 3월 13~15일, 씨어터 트랩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4』 출판

<흥가에 별들어라> 이해제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후지모토 겐이치 연출
 <이런 노래> 정복근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호리에 히로유키 연출
 <통일 익스프레스> 오태영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 나카무라 다카오 연출
 * <길 떠나는 가족> 김의경 작 / 이해정 번역
 * <자명고> 유치진 작 / 야마노우치 다스쿠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일한 연극교류의 역사와 미래> (발표: 김의경)

■ 제4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서울

2010년 1월 21~24일, 문화공간 이다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4』 출판

<신주쿠 핫켄텐-제1권 개의 탄생> 가와무라 다케시 작 / 명진숙 번역 / 최용훈 연출
 <도쿄 원자핵 클럽> 마키노 노조미 작 / 이해정 번역 / 이성열 연출
 <삼월의 5일간> 오카다 도시키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성기웅 연출
 * <모피의 마리> 데라야마 슈지 작 / 홍선영 번역
 * <물고기 전설> 아마자키 데쓰 작 / 박태규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세미나 <데라야마 슈지의 작품세계> (강사: 니시도 고진)

■ 제5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도쿄

2011년 2월 25~27일, 씨어터 트랩

- 낭독공연

<길 위의 가족> 장성희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지하루 연출
 <이-왕의 남자> 김태웅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아오이 요지 연출
 <달집> 노경식 작 / 송미행 번역 / 야나이 분쇼 연출
 * <여행> 윤영선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 <유랑극단> 이근삼 작 / 홍명화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일한연극교류의 역사> (발표: 김정옥)

<흥가에 별들어라>



<도쿄원자핵클럽>



<삼월의 5일간>



<신주쿠 핫켄텐>



<길 위의 가족>



<달집>



<이-왕의 남자>



〈조선형사 홍윤식〉



〈하얀 앵두〉



〈해무〉



〈난폭과 대기〉



〈목란언니〉



〈알리바이 연대기〉



〈오중주〉



■ 2011 한일연극워크숍 - 서울

2011년 3월 25~30일, 국립극단 연습실

(제)국립극단, 페스티벌 봄 공동주최

● 오카다 도시키 워크숍 〈화술과 움직임의 관계 연구〉

■ 제5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 서울

2012년 1월 27~29일, 명동예술극장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5』 출판

〈죄〉 호라이 류타 작 / 이해정 번역 / 안경모 연출

〈기억의 체온〉 마에카와 도모히로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홍영은 연출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하타사와 세이고 작 / 기무라 노리코·이성곤 번역 / 김광보 연출

*〈오래된 장난감〉 기시다 구니오 작 / 마정희 번역

*〈계계게노 계〉 와타나베 에리 작 / 이홍이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2000년대 이후 한일연극계의 새로운 경향과 전망〉

발제: 허순자, 니시도 고진, 마에카와 도모히로, 김방욱, 성기웅

■ 제6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 도쿄

2013년 2월 20~24일, 씨어터 트램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6』 출판

〈해무〉 김민정 작 / 송미행 번역 / 스즈키 아쓰토 연출

〈하얀앵두〉 배삼식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묘진 야스 연출

〈조선형사 홍윤식〉 성기웅 작 / 우키시마 와타루 번역 / 히로타 준이치 연출

*〈무의도기행〉 함세덕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옛날 옛적에 휘이 휘어이〉 최인훈 작 / 이용수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일한연극교류의 현재〉

발제: 김광보, 성기웅, 마쓰모토 유코, 사카테 요지

■ 제6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 서울

2014년 2월 21~23일 명동예술극장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6』 출판

〈난폭과 대기〉 모토야 유키코 작 / 이홍이 번역 / 김한내 연출

〈위대한 생활의 모험〉 마에다 시로 작 / 고주영 번역 / 김재엽 연출

〈허물〉 쓰쿠다 노리히코 작 / 명진숙 번역 / 류주연 연출

*〈아름다운 자들의 전설〉 미야모토 켄 작 / 이성곤 번역

*〈앞서가는 죽음〉 후지타 텐 작 / 이해정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일본현대연극의 부조리극 코드〉

발제: 니시도 고진, 야마구치 히로코, 쓰쿠다 노리히코, 허순자, 김재엽 / 사회: 장성희

■ 제7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 도쿄

2015년 1월 14~18일, 씨어터 트램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7』 출판

〈오중주〉 김윤미 작 / 기토 노리코 번역 / 마쓰모토 유코 연출

〈목란언니〉 김은성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호키모토 케이코 연출

〈알리바이 연대기〉 김재엽 작 / 우키시마 와타루 번역 / 고케 요시노리 연출

*〈회파람새〉 윤조병 작 / 홍명화 번역

*〈등신과 머저리〉 김상열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여성이 미래를 연다〉 (기초보고: 김명화)

발제: 김윤미, 나가이 아이, 고바야시 나나오 / 사회: 오자사 요시오

■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서울

2016년 2월 19~21일, 남산예술센터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7』출판

〈오사카 맥베스〉 이와사키 마사히로 작 / 이성곤 번역 / 문삼화 연출

〈슬립(SLIP)〉 구와바라 유코 작 / 이해정 번역 / 전인철 연출

〈점과 점을, 잇는 선. 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몇 개나 되는, 서로 다른, 세계. 그리고, 빛에 대해〉 후지타 다카히로 작 / 고주영 번역 / 윤한솔 연출

*〈그레이 크리스마스〉 사이토 렌 작 / 명진숙 번역

*〈지하실〉 마쓰이 슈 작 / 이홍이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세기 전환 후 한일 연극- 공동체의 삶과 연극의 대응〉

발제: 후지와라 히사토, 김소연, 이와사키 마사히로, 구와바라 유코, 장우재 / 사회: 허순자

■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도쿄

2017년 1월 26~29일, 자 코엔지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8』출판

〈미국 아버지〉 장우재 작 / 홍명화 번역 / 오타니 켄지로 연출

〈젊은 후시딘〉 윤미현 작 / 후지모토 하루미 번역 / 세키네 신이치 연출

〈미친극〉 최치연 작 / 우에노 노리코 번역 / 다니우지 후토시 연출

*〈단선〉 천승세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금희의 오월〉 박효전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위기에 서 있는 연극〉

발제: 김소연, 윤미현, 고노 다카시, 스즈키 아쓰토 / 사회: 니시도 고진

■ 2017 한일 극작가 포럼 -서울

2017년 9월23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 다목적실

극작가 포럼 〈소용돌이 치는 세계, 삶과 연극〉

발제: 가미사토 유다이, 김은성, 이경성 / 사회: 김소연

■ 제8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서울

2018년 3월 9~11일, 남산예술센터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희곡집8』출판

〈인사이드-헤지2〉 시모리 로마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최진아 연출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가미사토 유다이 작 / 고주영 번역 / 김정 연출

〈저편의 영원〉 오사다 이쿠에 작 / 이홍이 번역 / 강광원 연출

*〈로쿠메이칸〉 미시마 유키오 작 / 심지연 번역 (희곡 수록작)

*〈지옥끝까지온 천 '무명의 여관'〉 다니노 쿠로 작 / 명진숙 번역 (*는 희곡 수록작)

● 심포지엄 〈사실과 드라마〉

발제: 사카테 요지, 시모리 로마, 고연옥, 김재엽 / 사회: 김소연

■ 한국현대희곡 드라마리딩 번외편 -도쿄

2018년 3월 23~25일, 씨어터 트랩

● 낭독공연

〈등신과 머저리〉 김상열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 시라이 케이타 연출

〈금희의 오월〉 박효전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 스즈키 아쓰토 연출

● 심포지엄 〈광주민중항쟁과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

발제: 이상우, 김소연, 마나베 유코, 고노 다카시 / 사회: 니시도 고진

■ 제9회 한국현대희곡 낭독공연 -도쿄

2019년 1월23~27일, 자 코엔지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희곡집9』출판

〈자객열전〉 박상현 작 / 기무라 노리코 번역 / 가와구치 노리시게 연출

〈미국 아버지〉



〈미친극〉



〈젊은 후시딘〉



〈금희의 오월〉



〈등신과 머저리〉



〈인사이드-헤지2〉



〈+51 아비아시온, 산보르하〉





〈저편의 영원〉



〈노란봉투〉



〈소년B가 사는 집〉



〈자객열전〉



〈걱정만리〉



〈의자는 잘못 없다〉



〈가해자 탐구-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노란봉투〉 이양구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나카노 시로 연출

〈소년B가 사는 집〉 이보람 작 / 심지연 번역 / 오사와 유 연출

*〈늘근 도둑 이야기〉 이상우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호신술〉 송영 작 / 홍명화 번역 (*는 회곡 수록작)

● 심포지엄 〈사회적 사건과 연극〉

발제: 박상현, 이보람, 모리 마사토시 / 사회: 고노 다카시

■ 제9회 현대일본회곡 낭독공연 -서울

2020년 2월 21~23일 남산예술센터

● 낭독공연

〈다스 오케스터 (Das Orchester)〉 노기 모에기 작 / 이흥이 번역 / 정진세 연출

〈그 밤과 친구들〉 야마모토 스구루 작 / 이지현 번역 / 민세롬 연출

〈Birth〉 시라이 케이타 작 / 손상희, 쓰카구치 토모 번역 / 박근형 연출

*〈부표〉 미요시 주로 작 / 심지연 번역

*〈백년의 비밀〉 케라리노 산드로비치 작 / 고주영 번역 (*는 회곡 수록작)

● 심포지엄 〈한일연극교류의 미래〉

발제: 시라이 케이타, 오타 아키라, 고주영, 장지영 / 사회: 이성곤

■ 제10회 한국현대회곡 낭독공연 -도쿄

2021년 1월 27~31일, 자 코엔지

● 낭독공연 및 『한국현대회곡집10』 출판

〈걱정만리〉 김명곤 작 / 이시카와 유리 번역 / 미나미 신스케 연출

〈의자는 잘못 없다〉 선옥현 작 / 우에노 노리코 번역 / 정의신 연출

〈가해자 탐구- 부록: 사과문작성가이드〉 구자혜 작 / 홍명화 번역 / 니시오 가오리 연출

*〈리어의 역〉 기국서 작 / 송미행 번역

*〈이영녀〉 김우진 작 / 쓰가와 이즈미 번역 (*는 회곡 수록작)

● 심포지엄 〈앞으로의 일한 연극교류〉

발제: 오자사 요시오, 심재찬, 시라이 케이타, 이흥이 / 사회: 스킨 아쓰토

■ 일한연극교류센터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2021년 12월

한국연극의 일본 진출과 한일 연극인 교류에 대한 기여로.

■ 제10회 현대일본회곡 낭독공연 -서울

2022년 2월 11~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 낭독공연 및 『현대일본회곡집10』 출판

〈하얀 꽃을 숨기다〉 이시하라 넨 작 / 명진숙 번역 / 설유진 연출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요코야마 다쿠야 작 / 이해정 번역 / 이양구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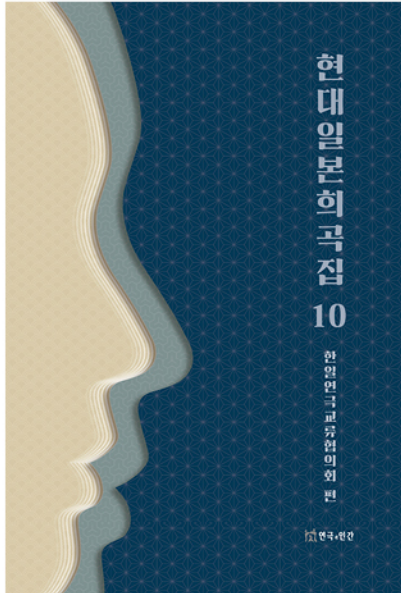
〈1986년: 뫼비우스의 띠〉 다니 겐이치 작 / 성기웅 번역 / 부세롬 연출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야마우치 겐지 작 / 이흥이 번역

*〈여자의 일생〉 모리모토 가오루 작 / 심지연 번역 (*는 회곡집 수록작)

● 심포지엄 〈팬데믹과 연극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생각한다〉

발제: 도재형, 시라이 케이타, 안경모, 야마구치 히로코 / 사회: 성기웅



현대일본희곡집 10

한일연극교류협의회 편 / 연극과인간 출판

여자의 일생 女の一生

● 모리모토 가오루 작 | 심지연 번역

안경부부의 이스탄불 여행기 메가네夫妻のイスタンブール旅行記

● 아마우치 겐지 작 | 이홍이 번역

하얀 꽃을 숨기다 白い花を隠す

● 이시하라 넨 작 | 명진숙 번역

1986년 : 뫼비우스의 띠 1986年:メビウスの輪

● 다니 겐이치 작 | 성기웅 번역

만나리 갈게, 비는 오지만 逢いにいくの、雨だけど

● 요코야마 다쿠야 작 | 이혜정 번역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조직

자문위원 임영웅(연출가) 김정옥(연출가) 김윤철(평론가)
손진책(연출가) 최치림(연출가) 박계배(연출가)
이응수(연극학자) 박명성(기획자) 구자홍(기획자)
허순자(평론가) 김광보(연출가)

회장 심재찬(연출가)

부회장 김병호(기획자) 이성곤(평론가)

감사 전운환(연출가) 정유란(기획자)

전문위원 고주영(기획자) 명진숙(연극학자) 성기웅(극작가, 연출가)
손상희(연출가) 심지연(번역가) 이혜정(기획자)
이홍이(번역가) 이시카와 유리(번역가)

사무국장 권지현(연출가)

간사 조윤수(배우)

구성단체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한국희곡작가협회
한국무대미술가협회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제10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2022.2.11(금)~2.13(일)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하얀 꽃을 숨기다

白い花を隠す

2월 11일(금) 19:30

작 | 이시하라 넨(石原燃)

번역 | 명진숙 연출 | 설유진

만나러 갈게, 비는 오지만

逢いにいくの、雨だけど

2월 12일(토) 15:00

작 | 요코야마 다쿠야(横山拓也)

번역 | 이혜정 연출 | 이양구

1986년 : 뱀비우스의 띠

1986年 : メビウスの輪

2월 13일(일) 15:00

작 | 다니 겐이치(谷賢一)

번역 | 성기웅 연출 | 부새롬

[심포지엄]

팬데믹과 연극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생각한다

2월 13일(일) 공연 종료 후



한일연극교류협의회

Korea-Japan Theatre Exchange Council

주최 | 한일연극교류협의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국립극단

협력 | 일한연극교류센터(日韓演劇交流センター)